

三國時代 圓環嚮考

李尚律*

목 차

- I. 머리말
- II. 類例와 構造分析
- III. 形式과 年代
- IV. 分化와 展開
- V. 맺음말

〈 요약 〉

원환비는 한 개의 독립된 원환이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하는 특징적인 재갈로서 삼국시대, 특히 6세기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에서 유행하였다. 그 형태는 원환 자체 혹은 입문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문이 없는 正圓形 원환이 주류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입문이 발달한 일본의 원환비와 좋은 대비를 이룬다.

원환비의 출현은 6세기1/4분기에 백제와 (대)가야지역에서 비롯되며 이로부터 신라,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기존의 표비나 관비와 더불어 새로운 마장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원환비의 변화는 함, 인수, 원환 등 각 구성요소와 이들의 연결방법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각 구성요소의 경우 함은 3연식에서 2연식으로, 인수는 두가닥에서 한가닥으로 변하며 원환은 처음에 크게 제작되다가 점차 크기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철봉의 단면은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해 나간다.

원환비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이들 구성요소의 연결방법이다. 처음에는 유환이 있고 원환이 함외환에 걸린 형식을 백제와 가야가 공유한다. 그러나 6세기2/4분기를 전후하여 백제에서는 유환이 없는 형식으로의 빠른 변화가 상정되며 이후 이것이 주류를 점한다. 또한 원환은 유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외환에 걸리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가야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환을 더욱 활용한다. 그래서 함외환에 걸려 있던 원환을 유환에 걸기도 하며 때로는 유환의 기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이를 변모, 중국에는 유환을 원환화한 새로운 형식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가야에서 점차 유환이 없는 형식이 유행하는데, 이를 통해 6세기대 백제마구의 가야 확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원환비, 마구, 재갈, 유환, 인수, 함

*부경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관

(접수일 : 2005. 4. 19, 심사일 : 2005. 5. 26, 심사완료일 : 2005. 6. 4)

I. 머리말

삼국시대에 유행한 재갈 중에 소위 원환비가 있다. 이것은 한 개의 독립된 원환이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함외환 혹은 이와 연결된 유환에 이 원환을 걸고 이를 통해 말의 얼굴에 씌웠던 굴레로 연결하여 말 입에 물린 함의 탈락을 방지하는 구조로 된 재갈을 말한다. 때로는 이 원환을 매개로 삼아 여기에 직접 함외환과 인수를 걸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원환은 그 외형상 얼핏 함과 인수를 연결하는 유환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유환과는 우선 크기도 다르고, 원환에다 혁대를 매기 위해 별도로 입문이나 겹사슬 등의 장치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유환과 쉽게 구별된다. 이외에도 간혹 함외환을 크게 만든 표비와 원환비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표비와의 구별은 함외축의 큰 환이 함 본체의 것인가 혹은 환이 함의 작은 외환에 물린 것인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는 표비가 되며 후자가 원환비이다.

원환비의 역사는 깊다. 鈴木治에 따르면 그 기원이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켈트족의 철 문화와 함께 나타나 라 텐느 중기에 성행하였다고 한다¹⁾. 이 때는 3연식 함이 위주였으나 라 텐느 후기부터는 2연식 함이 등장하는데, 특히 인수가 없는 2연식의 원환비는 로마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남러시아에서는 스키타이족에 이어 나타난 살마트족의 적석층에서 원환비가 많이 발견된다. 그 연대는 기원전 4세기~기원 1세기로 비정되는데, 최초의 출현은 돈강 유역이 기원전 4세기, 쿠반지방이 기원전 3세기라고 하나 그 실체는 아직 명확치 않다.

이처럼 원환비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현재 켈트說과 살마트說이 대립하여 미해결의 상태에 있으나 유럽에서는 기원전부터 유행하던 이 원환비가 우리나라에서 6세기에 갑자기 등장하여 유행하는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원환비의 예는 현실적으로 매우 적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80년대 이후 재갈을 필두로 각 마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상황 속에서도 유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표비나 판비에 비해 원환비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이 극히 초보적이거나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鈴木治는 삼국시대의 재갈을 표비, 경판비, 원환비의 3형식으로 분류하여 일찍부터 원환비의 존재를 부각시킨 바 있다²⁾. 나아가 원환비의 구조를 오인하여 다른 형식의 재갈에 소속시키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원환비에 대한 검토의 부재로 그 구

1) 鈴木治, 1958, 『朝鮮半島出土の轡について』 『朝鮮學報』 13, 91-92.

2) 鈴木治는 삼국시대의 재갈을 표비, 경판비, 원환비의 3형식으로 분류하여 일찍부터 원환비의 존재를 부각시킨 바 있다. [鈴木治, 1958, 『앞책』 (주 1) 91]. 그러나 이후 미비한 출토예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차 상실되어 온 반면 용

조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충분히 인식치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삼국시대 재갈의 4형식, 즉 표비, 판비, 환판비, 원환비 중에서 현재 우리의 관심에서 가장 비껴나 있는 원환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금은 유례가 그리 많지 않지만, 원환비도 삼국시대 특히 6세기대를 대표하는 재갈의 한 형식이었던 만큼 조사가 행해질수록 그 자료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그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기초적인 분류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적은 자료나마 지금까지 출토된 자료를 대상으로 그 구조를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환비의 형식과 특징, 그 연대와 전개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삼국시대 마구에 있어 원환비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비록 수적 열세에 따른 분석의 한계가 있는 시점이지만 이러한 추적을 시도 가능케 한 배후에는 마구에 있어 최근 축적된 다양한 연구 성과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음을 명기해 두고 싶다⁴⁾.

II. 類例와 構造分析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원환비는 6세기대에 비로소 출현, 유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물로 출토된 것은 10여 예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다른 형식의

어상으로는 표비 혹은 판비 형식까지 아우른 상태에서 환상, 환형표마함, 원환표마함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어 다소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金基雄, 1972. 「馬具」 『韓國의 考古學』 5장, 238-245.

金基雄, 1985. 「三國時代의 武器와 馬具」 『考古美術』 (韓國의 美) 22.

金基雄, 1987. 「韓國 古代의 馬術考」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I』 考古學篇, 391-398.

한편 출토예가 많은 일본에서도 원환비 이외에 환상경판부비, 소환경판부비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통일되지 않은 이러한 용어도 연구자에게 혼란감을 가중시켰던 것 같다.

岡安光彦, 1984. 「いわゆる「素環の轡」について -環狀鏡板付轡の形式學的分析と編年-」 『日本古代文化研究』 (古墳文化研究會) 創刊號, 95-120.

板本美夫, 1985. 「馬具」 (考古學 라이브러리) 34, 31-58.

3)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함 본체와 일체로 만들어진 함외환의 직경이 크거나 유환이 딸린 표비를 원환비로 간주한 예가 많다.

4) 최근의 대표적인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金斗喆, 2000. 「韓國 古代 馬具의 研究」 (東義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柳昌煥, 2004. 「百濟馬具에 대한 基礎的 研究」 『百濟研究』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40, 171-201.

申敬澈, 1994. 「加耶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 (釜山大學校史學會) 18, 263-295.

李尙律, 2004. 「韓國南部地方의 馬具의 推移から見た宮崎縣の馬具」 『それでも騎馬文化はやってきた』 (西都原考古博物館), 30-36.

_____, 2005. 「三國時代 馬具의 研究」 (釜山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재갈에 비해 그리 성행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마구에 대한 고분의 유물 매납이 규제된 탓인지 원환비 뿐만 아니라 마구 전반에 걸쳐 그 출토예가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단지 출토수량 만으로 그 성행유무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분시대 후기에 마구의 매납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환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출토되는 경향을 볼 때 간접적이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원환비가 성행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최근의 조사에서 자료가 증가하는 추세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출토된 원환비가 소수에 불과한데다 그 중에는 전형을 파악하기 힘든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접근이 용이치 않다.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에만 한정하여 출토되고 있다. 이처럼 시기적, 지역적으로 한정적인 상황이지만 삼국시대 재갈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형식의 출현에 따른 획기가 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유물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들은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함, 인수 및 원환의 상호 결합방식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연결법에 따른 다양한 형식 분류를 가능케 해 줌과 동시에 이를 통한 시기적인 변화상도 엿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유물 개개의 연결법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왕에 공표된 자료에 대해 연결법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확인해 보되, 유물의 잔존상태가 불량하거나 구체적으로 파악치 못한 구조에 대해 보고된 내용과는 인식을 달리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므로 이 점을 중시하면서 필자의 관찰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1. 함안 도항리 14-2호분(도면 1-1)⁵⁾

대형 수혈식석곽묘이다. 상부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상당한 유물들이 원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구는 주괴장자의 머리 쪽에서 남쪽 장벽 쪽으로 치우쳐 재갈, 등자, 십자문십엽형 행엽, 운주⁶⁾ 등이 출토되었다.

재갈은 철제로서 원환과 유환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전형의 파악이 가능하다. 함은 3연식이며 철봉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환을 돌리고 난 철봉의 끝을 본체 전반

5) 朴東百 외, 1992, 『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Ⅰ)』(昌原大學校博物館), 143-158.

6) 보고서에는 운주라는 표현 대신 둥근고리로 보고되어 있다[朴東百 외, 1992, 『알책』(주 2) 156]. 마구가 모여 있는 재갈과 행엽 사이에서 출토되었으므로 마구와 관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마구는 환형운주 밖에 없다. 즉 환형운주의 철환 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환형운주로 간주한다. 다만 철환 주위에 딸리는 脚金具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핵대의 부식에 따라 이탈, 분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에 걸쳐 감아 돌린 것이다. 중앙 함은 그 좌우에 연결된 함의 길이보다 다소 짧다. 함외환에는 유환과 원환을 함께 끼웠으며 유환에 인수를 연결시켰다. 인수는 두가닥의 본체를 두드려 외형상 한가닥으로 만들었다. 인수외환은 본체로부터 직각에 가깝게 꺾어 놓았다. (함장 72cm(중간) · 12.0cm, 인수장 18.6cm · 19.2cm, 원환경 9.8cm)

2.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도면 1-2)⁷⁾

대형 수혈식석곽묘이다. 많은 부분이 파괴됨에 따라 유물의 대부분이 제 위치를 이탈하였다. 마구도 교란된 석재 사이에서 재갈을 비롯하여 청동제 마령, 검릉형행엽, 운주⁸⁾, 안고 등이 집중 출토되어 이미 원래의 부장 위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철제의 재갈은 절반가량이 결실되었으나 함 구조를 제외한 전체적인 형태는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다. 현존하는 함은 단면 방향의 철봉의 양단을 말아서 내외환을 만들고 그 끝을 본체에 한두 번 감아 마무리하였다. 보고 당시 함을 2연식으로 간주하고 전형을 도상 복원하였으나 복원상의 오류가 간취된다. 복원도의 함내환마다 걸려있는 별도의 고리편을 3연식함의 중앙 함 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3연식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된 대로 2연식의 함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선으로 복원한 함외환 부위가 반대편 쪽 함내환에 걸려있는 고리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함내환으로 복원된 부위는 함외환이, 여기에 물려진 별도의 고리는 인수 잔편이 될 것이다. 여하튼 본 재갈의 함은 잔존 상태로 보는 한 2연식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함외환에는 직접 원환과 인수를 끼웠으며 유환은 사용치 않았다. 원환은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잔존해 있다. 인수는 한가닥으로서 함의 제작법과 동일하게 철봉으로 양단을 말아 내외환을 만든 뒤 그 끝을 본체에 감아 마무리하였다. 인수외환은 본체로부터 약 40~60° 가량 꺾여져 있다. (함장 9.2cm, 인수장 15.1cm, 원환경 6.5cm)

3. 진주 가좌동 1호분(도면 1-3)⁹⁾

수혈식석곽묘로서 마구는 재갈 1점만이 단벽의 토기 부장부분 가까이에서 출토되었다.

7)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4. 『I. 함안 말산리451-1번지 유적』(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42-43.

8) 보고서에는 鐵環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 주위에 딸린 각금구가 보이지 않는데, 이미 분산된 것 같다. 각금구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철지금동장제의 革金具로 보고된 것은 철환의 각이 아니라 재갈이 같은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과 조합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9) 趙榮濟 · 朴升圭, 1989. 『晉州加佐洞古墳群 -1~4號墳-』(慶尙大學校博物館), 26-28.

철제의 재갈은 함이 2연식인데, 단면 원형 철봉의 양단을 말아 내외환을 만들고 그 끝을 본체에 감아 마무리하였다. 내환이 삼각형, 외환은 거의 원형에 가깝다. 함외환에는 한쪽이 유환과 원환을 함께 끼우고 유환에 인수를 연결시켰으나 반대편의 함외환에는 원환만이 끼워지고 이 원환에 별도의 소형 고리편이 수착되어 있어 비대칭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이 소형 고리편은 유환 혹은 인수내환 중 어느 하나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나 좌우 비대칭의 양상을 보이는 현 상태로서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명확치 않다. 다만 완전하게 남아있는 반대편을 참고한다면 유환이 거의 원형, 인수내환이 삼각형상인 점에서 원환에 남겨진 소형 고리편은 유환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쪽에 해당하든지 간에 함외환에 끼워진 원환을 통해 유환 혹은 인수가 연결됨으로써, 원환과 유환이 함외환에 독립적으로 끼워진 반대편과 제작 양상을 달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양쪽의 연결구조가 다르고 한쪽이 완전하게 잔존치 않는 현재로서는 본 재갈의 기본구조를 일단 상대적으로 잘 남아있는 한쪽을 기준으로 삼아 함외환에 원환과 유환을 끼우고 다시 유환에 인수를 끼운 구조로 파악하고자 한다¹⁰⁾.

유환에 끼워진 인수는 함과 거의 비슷한 크기와 형태의 한가닥이다. 양단을 말아 내외환을 만들고 그 끝을 본체에 감아 마무리하였다. 인수외환은 본체로부터 약 70° 가량 꺾여져 있다. (함장 8.9cm, 인수장 8.7cm, 원환경 6.5cm)

4. 진주 옥봉 7호분(도면 1-4)¹¹⁾

연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횡혈식석실묘이다. 1910년 조사 당시 이미 도굴당한 상태였으나 현실 내에 토기와 철기가 잔존해 있었다. 토기를 비롯한 유물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 다시 소개된 바 있으나¹²⁾ 철기의 경우 사행상철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가 행방불명된 상태이다. 출토된 마구는 남겨진 사진으로만 짐작할 수 있는데, 확인 가능한 것은 인동타원문이 시문된 타원형판비 1점, 원환비 1점, 등자 1쌍과 교구편이다.

원환비는 철제로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구조는 짐작 가능하다. 함은 잔존 부위로 보는 한 3연식이 분명하다. 결실된 부위는 중앙 함의 한쪽 환, 그리고 이와 연결된 한쪽 함내환이다. 반대편의 함은 완존해 있는데, 자세하지는 않으나 철봉의 양단을 말아 내외환을 만들고 그 끝을 본체에 여러 번 감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본체의 길이가 짧은

10) 양쪽의 연결구조가 다른 원인으로서 처음부터 제작을 달리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재갈의 경우 그러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실치는 않으나 필자는 파손에 따른 수리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11)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朝鮮總督府) 第3冊, 277-292.

12) 定森秀夫 외, 1990. 『韓國慶尙南道晉州 水精峰2號墳·玉峰7號墳 出土遺物』 『伽倻通信』 19·20合輯, 19-51.

관계로 인해 시각적으로 함 전체를 꼬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중앙 함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함외환에는 유환만 끼우고 이를 통해 원환과 인수를 끼웠다. 원환은 별다른 장치가 없는 철환이다. 인수는 한가닥이며 함과 동일하게 내외환을 만든 철봉의 끝을 본체에 여러 번 말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수외환은 본체로부터 꺾지 않았다. 전체적인 규격은 알 수 없다.

5. 합천 옥전 M6호분(도면 1-5)¹³⁾

반지상식의 수혈식석곽묘로서 마구는 목곽 내부의 피장자 발치 쪽에서 재갈, 안고, 인동타 원문의 심엽형행엽, 운주, 교구 등이 출토되었다.

철제의 재갈은 수화와 결실이 심하여 입문금구와 인수호 일부가 탈락, 결실되었으나 전형의 복원은 가능하다. 함은 2연식으로서 단면 원형의 철봉을 꼬지 않고 그대로 만들었다. 함외환에는 원환을 끼우고 여기에 인수를 연결하였다.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환은 단면 원형의 철봉을 둥글게 구부러서 양끝을 단접하여 하나의 환으로 만든 것이다. 굴레로 이어지는 입문의 역할로서 작은 겹사슬을 수 단으로 연결하였으나 현재 일부가 탈락되고 최대 7단까지만 확인된다.

인수는 한가닥으로서 함과 동일하게 본체를 꼬지 않고 제작하였다. 인수외환을 본체로부터 꺾지 않은 대신 여기에 호리병형의 인수호를 끼웠다. (함장 9.4cm, 인수장 16.2cm, 원환경 8.0cm, 인수호장 7.6cm)

6. 양산 부부총(도면 1-6)¹⁴⁾

부부 합장의 횡구식석실묘이다. 이미 1920년에 조사된 바 있으나 최근에 재조사와 더불어 유물이 재실측되면서 다시 소개된 바 있다¹⁵⁾. 최초의 조사 당시 많은 유물이 원위치에서 정연하게 출토되었는데, 마구는 추가장된 부인의 시상대쪽에서 재갈, 안고, 등자, 편원어미형행엽, 입주부운주, 마탁, 사행상철기 등 일식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는 주피장자의 것이었으나 이후 부인을 합장할 때 부인 쪽으로 옮긴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3) 趙榮濟·朴升圭 외, 1993, 『陝川玉田古墳群IV』(慶尙大學校博物館), 66-105.

14) 小川敬吉, 1927, 『梁山夫婦塚及其遺物』(朝鮮總督府 古蹟調査特別報告 5).

15) 沈奉謹, 1991, 『梁山金鳥塚·夫婦塚』(東亞大學校博物館), 65-153. 특히 유구의 재조사 결과, 종래의 횡혈식석실묘에서 횡구식석실묘로 정정되었다.

철제의 재갈은 출토 당시 거의 완형이었으나 현재는 인수외환이 결실되었다. 함은 2연식으로서 단면 원형의 철봉을 끼지 않고 만들었다. 함외환에는 원환과 인수를 동시에 끼웠다. 재갈 멈추개 역할을 담당하는 원환은 단면 원형의 철봉을 구부린 것으로서 별도의 입문 구조가 없다. 인수는 길이가 짧은 두가닥으로서 함과 동일하게 본체를 끼지 않고 제작하였다. 원 보고서의 도면을 참고한다면 인수외환은 본체로부터 직각에 가깝게 꺾여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수외환 부근의 본체에는 고삐의 잔흔으로 추정되는 마직계통의 이물질이 잔존해 있다. (함장 10.4cm, 추정 인수장 11.2cm, 원환경 7.0cm)

7. 청원 미천리고분(도면 1-7·8)¹⁶⁾

유구는 수혈식과 횡구식석곽묘로 나누어진다. 수혈식석곽묘는 평면이 세장방형이며 바닥에 시상대를 설치한 것으로서 후술할 논산 모촌리고분군과 유사하다. 유물은 대부분이 6세기대로 편년되는 신라계인 점에서 이 시기에 중원으로 진출한 신라인에 의해 조성된 고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마구도 백제계가 아닌 신라계일 가능성이 크다. 마구는 가지구의 1호분과 3호분에서 출토되었다.

1호분은 횡구식석곽묘로서 마구는 재갈, 운주, 교구와 띠고리 등이 출토되었으나 교구를 제외하고 모두 파손이 심하여 형태가 명확치 않다.

철제의 재갈(도면 1-7)은 총 6개의 잔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두가닥으로 된 고리잔편 2점이 인수, 한가닥으로 된 고리잔편 1점이 함이다. 나머지 3점은 모두 고리잔편으로서 잔존하는 직경으로 미루어 보아 직경이 가장 작은 1점은 함의 잔편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남은 2점의 고리잔편인데, 복원 직경 5cm 전후의 이것이 함외환인지 원환인지 확실치가 않다. 보고에 따르자면 이를 재갈멈추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재갈멈추개는 다음의 3호분 재갈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원환을 의미하기보다는 직경이 큰 함외환을 재갈멈추개로 인식하는 것 같다. 여하튼 이 고리잔편의 정체는 그 직경으로 미루어 보아 함외환 보다는 원환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후술할 3호분 재갈을 참고하자면 함외환에 이 원환을 인수와 함께 끼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3호분은 수혈식석곽묘이다. 마구는 재갈과 교구뿐이나 교구가 마구용이었던지는 명확치 않다. 철제의 재갈(도면 1-8)은 원환 일부만 결실되었을 뿐 거의 완형에 가깝다. 보고에 따르자면 재갈쇠(함) 및 재갈멈추개(원환), 고삐이음대(인수)가 완전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해석일 뿐만 아니라 도면상의 오류도 간취된다.

16) 尹根一 외, 1995, 『清原 米川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國立文化財研究所), 39-58.

우선 도면상으로는 재갈멈추개가 없다. 도면대로라면 이 재갈은 원환비가 아니라 함외환의 직경이 큰 표비가 된다. 이 함외환을 재갈멈추개로 인식한 것 같다. 그러나 도면과 같이 설혹 표비라 할지라도 함외환이 재갈멈추개가 될 수는 없다. 주로 유기물로 제작되는 별도의 표가 존재하여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오류는 함외환에 끼워져 있는 원환을 함외환 자체로 오인한 데 기인한다. 실제로 원환과 인수가 동시에 끼워진 함외환의 직경은 함내환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재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함은 2연식으로서 단면 원형의 철봉을 꼬지 않고 만들었다. 함외환에는 원환과 인수를 동시에 끼웠다. 재갈멈추개 역할의 원환은 별도의 입문 구조가 없이 단면 원형의 철봉을 등글게 구부린 것이다. 인수는 길이가 비교적 긴 한가닥으로서 함과 동일하게 본체를 꼬지 않고 제작하였다. 인수의외환은 본체로부터 꺾여져 있다. (함장 6.0cm, 인수장 11.5cm, 원환경 6.3cm)

8. 논산 모촌리고분군(도면 1-9~11)¹⁷⁾

유구는 수혈식 및 횡혈식석실묘, 옹관묘 등이나 이 가운데 수혈식석실묘가 압도적이다. 유물은 토기, 철기, 금동이식 등이 출토되었으며 마구는 4, 5, 14호 수혈식석실묘에서만 소량 출토되었다.

4호분에서는 북쪽 단벽에 가로질러 만든 부곽 내에서 재갈(도면 1-9) 1점만이 출토되었다. 철제로서 함 및 원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전형의 파악은 가능하다. 함은 짧은 2연식으로서 철봉을 꼬지 않고 만들었다. 그러나 내외환 부분은 양단을 말아서 환을 만든 후 그 끝을 본체에 감아 마무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함외환에는 원환과 인수를 동시에 끼웠는데, 원환은 별도의 입문 구조가 없이 단면 방형의 철봉만 구부린 것이다. 인수는 한가닥으로서 단면 방형의 철봉을 이용하여 함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인수의외환은 본체로부터 꺾여져 있다. (함장 6.0cm, 인수장 11.5cm, 원환경 6.3cm)

5호분에서는 곽내 북쪽 부곽 막음돌과 시상대 사이의 동쪽 장벽에 치우쳐 마구가 출토되었다. 보고에 따르자면 이들 마구는 재갈을 비롯하여 안교, 안교장식 교구, 안교장식 철제교구, 안교장식 철제환, 고리형 장식품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부언하자면 재갈은 원환비, 안교는 외륜에 삽입되는 목관의 하연외측에 부착된 내연금구, 안교장식 교구는 안교의 좌목선교구, 안교장식 철제교구는 안교와 직,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현대의 교구에 해당

17) 安承周·李南奭, 1994, 『論山 茅村里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Ⅱ)-1993年度 發掘調査-』(百濟文化開發研究院·公州大學校博物館)

한다. 또한 안교장식 철제환은 운주의 역할을, 고리형 장식품은 운주 주변을 중심으로 혁대를 엮은 책금구이다.

재갈(도면 1-10)은 완형의 철제이다. 함은 철봉 2선을 나란히 하여 양단에 내외환을 만든 형태이며 이를 3개 연결시킨 3연식의 함이다. 함외환에는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환과 유환을 함께 끼운 후 유환에 다시 인수를 연결하였다. 원환은 별도의 입문 구조가 없이 단면 원형의 철봉을 구부린 것이다. 인수는 두가닥으로서 함과 동일하게 본체를 꼬지 않고 제작하였다. 인수외환은 내환보다 직경이 다소 크며 본체로부터 약 70° 가량 꺾여 있다. (함장 7.5cm, 인수장 18.0cm, 원환경 9.5cm, 유환경 2.3cm)

14호분에서는 시상대 위에서 재갈(도면 1-11) 1점만이 출토되었다. 철제이며 파손이 심하여 전형과 규격을 파악하기 힘들다. 잔존하는 철편을 통해 상호간의 연결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함은 2연식으로서 단선의 철봉을 꼬지 않고 만들었다. 함외환에는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환과 유환을 함께 끼운 후 유환에 다시 인수를 연결하였다. 원환은 별도의 입문 구조가 없이 단면 원형의 철봉을 구부린 것이다. 인수는 두가닥으로서 함과 동일하게 본체를 꼬지 않고 제작하였다. 인수외환은 본체와 이탈되었으나 역시 본체로부터 일정 각도로 꺾여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환경 6.5cm)

이외에도 원환의 한쪽을 돌출시켜 입문으로 삼은 논산 표정리고분 원환비가 있으나 이들을 제외하고는 원환비로 보고되었더라도 거의 원환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도 좋다. 이는 재갈의 기능이나 세부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갈멈추개의 전체적인 외형만을 중시한 탓으로 인해 표비, 환판비를 원환비로 잘못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김두철의 구체적인 지적¹⁸⁾이 있으므로 개개의 검토는 생략하되, 다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원환비로 간주되고 있는 함천 봉계리 171호분 재갈(도면 1-12)의 정체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고자 한다¹⁹⁾.

수혈식석곽묘인 171호분에서는 마구로서 재갈 1점만이 출토되었다. 함은 꼬지 않은 철봉으로 만든 2연식이다. 함외환에는 별도의 소형고리가 끼워져 있고 여기에 인수가 연결되어 있다. 인수 역시 함과 동일하게 철봉을 꼬지 않은 한가닥이며 인수외환은 본체로부터 꺾이지 않은 직선형이다. 이상이 본 재갈의 전형인데, 문제는 함외환에 끼워진 직경 약 3.5cm 가량의 소형고리에 있다. 즉 이 고리가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환으로 인식하여 연결법상 함-원환-인수로 이어지는 원환비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다²⁰⁾. 이러한 연결법은 옥전 M6호분에서도

18) 金斗喆, 2000, 『앞책』(주 4) 97-102.

19) 沈奉謹, 1986, 『陝川鳳溪里古墳群』(東亞大學校博物館), 297-301.

20) 보고서에는 이 재갈의 형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를 처음 원환비로 간주한 것은 필자와 김두철에 의해서이다. 다만, 필자는 문제의 소형고리를 원환이 아닌 유환으로 인식하고 원환은 별도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재갈이 원환비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소형고리에 입문이나 겹사슬 등 입문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던지 혹은 원환비의 특징답게 고리의 직경이 최소한 5cm 이상 커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또 다른 원환이 존재한다면 원환비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함외환에 끼워진 소형고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전혀 충족치 못하고 있다. 특히 규격상 현재까지 출토된 원환비 중 이처럼 소형 직경을 가진 원환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소형고리를 재갈멈추개(원환)가 아닌 유환으로 보는 이상, 이 재갈의 정체는 원환비 뿐만 아니라 표비, 판비도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잔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환비 보다는 표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形式과 年代

주지하듯이 재갈은 말을 부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장구인 만큼 그 제작과 활용상의 변화가 매우 활발히 행해져 왔다. 그래서 마구 중에서도 그 형식과 조합의 다양성이 가장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시간이나 공간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갈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형식 분류에 많은 비중이 두어져 왔으며 그 결과 삼국시대 재갈은 형식상 표비, 판비, 환판비, 원환비의 4형식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거의 정착된 듯 하다. 이들 각각의 재갈은 그 출현배경이나 발전 양상이 서로 달라 삼국시대의 재갈을 분류하고 그 계통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분류의 기준이 된다.

재갈은 함, 재갈멈추개, 인수의 3요소가 모여 하나의 재갈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재갈의 기능적인 특징이나 형식, 시간적인 편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요소에 대한 각각의 세분된 특징을 파악해 내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3요소의 조합상, 즉 상호간의 연결방법적 형식 설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갈멈추개의 역할로서 원환을 사용한 원환비의 분류도 이러한 기준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이하, 출토된 원환비의 각 요소별 특징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에 따르자면 우선 원환비의 함은 삼국시대에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2연식 혹은 3연식과

이 있다[李尙律, 1998, 「新羅, 伽倻文化圈에서 본 百濟의 馬具」 『百濟文化』(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7, 209-239]. 그러나 김두철은 소형고리 자체를 원환으로 간주한다[金斗喆, 2000, 『앞책』(주 4) 102-127]. 지금 필자는 이 소형고리를 유환으로 보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별도의 원환이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에는 이 재갈이 원환비가 아닌 것으로 보고자 한다.

크게 다를 바 없다. 표비, 판비 등 다른 형식의 재갈이 대부분 2연식을 채용하는 데 비해 원환비의 경우 2연식과 함께 3연식도 상대적으로 다수 채용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존하는 원환비 중 3연식은 도항리 14-2호분, 옥봉 7호분, 모촌리 5호분으로 대표된다. 이들 합은 단면 원형의 철봉으로 만들었으나 형태는 꼬운 효과를 낸 것, 꼬지 않은 것, 철봉 끝을 본체에 감은 것 등 각기 다르다. 반면에 2연식의 경우 단면 원형 혹은 방형의 철봉을 사용하되 거의 꼬지 않으며 일부 철봉 끝의 처리를 본체에 한두 번 감은 것이 눈에 띈다. 나아가 합은 이러한 제작은 인수의 제작방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다음으로 재갈멈추개는 재갈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원환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원환은 철봉을 둥글게 구부려 만든 것으로서 판비와 같이 금동장이나 장식문양을 가한 예가 없고 環體의 형태도 다양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원환의 구분은 입문의 제작 유무, 그리고 입문이 있는 경우 환체와의 고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²¹⁾. 이러한 입문 구조에 따른 구분은 곧 재갈멈추개가 굴레에 어떻게 연결되면서 개량되어 갔는지를 뜻하는 점에서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원환비 중 원환에 별도의 입문을 만든 예는 극히 드물어서 별도의 접사슬을 끼운 옥전 M6 호분이나 원환을 표형으로 구부린 표정리고분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문이 없는 정원형 원환에 속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입문을 가진 예가 많은 일본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입문이 없는 원환을 선호, 다수 채용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토예가 적고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대폭이 좁은데 따른 다양성의 부재에도 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원환비의 각 요소별 특징

재갈	속성	합			원 환			인 수			
		연식	단면	형태	입문	단면	직경(cm)	본체	단면	형태	외환
함안도항리 14-2호	3	원형	꼬움	무	원형	9.8	한가닥식 (두가닥)	원형	꼬지 않음	꺾음	
함안말산리 451-1호	?	방형	말단 감음	무	이등변 삼각형	6.5	한가닥	방형	말단 감음	꺾음	
진주 가좌동 1호	2	원형	말단 감음	무	원형	6.5	한가닥	원형	말단 감음	꺾음	
진주 옥봉 7호	3	원형	말단 감음	무	원형	?	한가닥	원형	말단 감음	직선 인수호?	

21) 花谷浩, 1986, 「素環鏡板付嚮の編年とその性格」 『山陰考古學の諸問題』 (山本清先生喜壽記念論集), 239-276.

재갈	속성	함		원 환			인 수			
	연식	단면	형태	입문	단면	직경 (cm)	본체	단면	형태	외환
합천 옥천 M6호	2	원형	꼬지 않음	겹사슬	원형	8.0	한가닥	원형	꼬지 않음	직선 인수호
양산부부총	2	원형	꼬지 않음	무	원형	7.0	두가닥	원형	꼬지 않음	꺾음
청원 미천리 1호	?	말각 방향	꼬지 않음	무?	말각 방향	5.0?	두가닥	말각 방향	꼬지 않음	?
청원 미천리 3호	2	원형	꼬지 않음	무	원형	6.3	한가닥	원형	꼬지 않음	꺾음
논산 모촌리 4호	2	방향	말단 감음	무	방향	6.3	한가닥	방향	말단 감음	꺾음
논산 모촌리 5호	3	원형	꼬지 않음	무	원형	9.5	두가닥	원형	꼬지 않음	꺾음
논산 모촌리 14호	2	방향	꼬지 않음	무	원형	6.5	두가닥	방향	꼬지 않음	?

원환의 크기는 직경 5~10cm로 다양하나 3연식의 경우 9cm를 초과하는 대형인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함의 구조에 따른 제작적 특징이기 보다는 시기적인 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옥천 M6호분의 예와 같이 원환이 유환의 역할을 공유하는 구조에서는 대부분 원환을 크게 제작하는 경향이므로 이 경우 크기에 따른 시기성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음이 유의된다. 원환의 단면은 원형, 말각방향, 방향, 이등변삼각형 등 다양하나 역시 함과 인수의 단면형태와 연동되어 있다.

원환비의 인수 역시 함과 마찬가지로 삼국시대에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한가닥 혹은 두가닥 인수와 큰 차이가 없다. 이외에도 도항리 14-2호분의 예와 같이 두가닥의 본체를 두드려 외형상 한가닥으로 만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느 형태든지 본체를 꼬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내외환을 만든 후 철봉 끝을 본체에 한두 번 감아 마무리한 것도 있는데, 이 경우 함도 동일한 제작방법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수 철봉의 단면 역시 함 및 원환의 단면 형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수외환은 꺾인 것과 꺾이지 않은 것 양 형태가 존재하나 전자의 경우가 압도적이다. 외환을 꺾지 않고 본체와 직선되게 처리한 옥천 M6호분의 경우 별도로 호리병형 인수호를 부가하였다. 이러한 인수호는 비단 원환비 뿐만 아니라 5세기말 이후 백제, 대가야권에서 유행한 판비(내만타원형 혹은 f자형)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인수외환의 꺾임이 보이지 않는 옥봉 7호분의 경우도 인수호가 파손, 탈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2〉 원환비의 연결법

형식	연결 방법			
	A1식	A2식	B1식	B2식
특징	유환을 통해 함과 인수 연결, 원환은 함외환에 끼움	유환을 통해 함과 인수 연결, 원환도 유환에 끼움	유환 없이 함과 인수를 직접 연결, 원환은 함외환에 끼움	유환 없이 함과 인수를 원환으로 연결
모식도				
재갈	함안 도항리14·2호 진주 가좌동1호 논산 모촌리5·14호	진주 옥봉7호	함안 말산리451-1호 양산 부부총 청원 미천리3호 논산 모촌리4호	합천 옥전M6호분

이제 이들 각 요소의 연결법에 대해 살펴보자. 원환비는 이상의 각 요소를 상호 결합함에 있어 유환의 존재유무와 원환의 부착 위치에 따라 연결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들이 연결방법을 분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를 통해 살펴보자면 우선 유환이 있는 경우(A식) 함과 인수는 당연히 유환을 통해 연결되지만, 이 때 원환이 함외환에 끼워진 것(A1식)과 유환에 끼워진 것(A2식)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A1식에는 함안 도항리 14·2호, 진주 가좌동 1호, 논산 모촌리 5호·14호, A2식에는 진주 옥봉 7호분의 재갈이 각각 속한다.

다음으로 유환이 없는 경우(B식), 인수와 직접 연결된 함외환에 원환이 끼워진 것(B1식)과 인수와 함외환이 원환을 통해 연결된 것(B2식)으로 구분된다. B1식에는 함안 말산리 451-1호, 양산 부부총, 청원 미천리 3호, 논산 모촌리 4호, B2식에는 합천 옥전 M6호분 재갈이 이에 해당한다. 〈표 2〉는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원환비는 아직 그 출토예가 적고 원환의 입문 형태도 매우 한정적이지만 연결방법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시기적인 면과 함께 지역적인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이들이 출토된 유구의 연대 및 동반마구와 더불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듯이 특정 마구는 그 성격상 이것만으로는 특정 지역, 특정 유구의 시기를 세밀하게 편년해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와 동반하는 토기 혹은 세트되는 마구 등에 대한 편년에 이를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원환비가 출토된 위의 유구에서는 각종의 토기뿐만 아니라 원환비와 세트되는 마구도 다수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대의 추정에 별 무리가 없다. <표 3>은 이를 바탕으로 원환비가 출토된 유구의 연대와 동반마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원환비 출토 유구의 연대와 동반마구

유구	구조	동반마구	연대	연결형식
함안 도항리14-2호	수혈식석곽묘	등자, 십자문심엽형행엽, 운주	6세기1/4분기	A1
함안 말산리451-1호	수혈식석곽묘	안교, 검릉형행엽, 운주, 마령	6세기2/4분기	B1
진주 가좌동1호	수혈식석곽묘		6세기1/4분기	A1
진주 옥봉7호	횡혈식석실묘	타원형판비, 등자, 사행상철기, 교구	6세기2/4분기	A2
합천 옥전M6호	수혈식석곽묘	안교, 인동타원문심엽형행엽, 운주, 교구	6세기2/4분기	B2
양산 부부총	횡구식석실묘	등자, 안교, 편원어미형행엽, 입주부운주, 마탁, 사행상철기	6세기1/4분기	B1
청원 미천리1호	횡구식석곽묘	운주, 교구, 띠고리	6세기2/4분기	B1
청원 미천리3호	수혈식석곽묘	교구	6세기1/4분기	B1
논산 모촌리4호	수혈식석실묘		6세기1/4분기	B1
논산 모촌리5호	수혈식석실묘	안교, 운주	6세기1/4분기	A1
논산 모촌리14호	수혈식석실묘		6세기1/4분기?	A1

각 유구의 연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오차를 감안한다 하여도 <표 3>에 제시한 연대에서 1/4분기 이내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들의 연대가 모두 6세기1/4~2/4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시기폭 내에서 그 선후 및 변화관계를 파악해내기가 용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의 세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결형식의 기능적인 변화상을 추적해 보고, 더불어 출토 유구의 구조 및 동반마구의 검토를 병행해 본다면 지역과 시기에 따른 형식의 전개과정을 어느 정도 유추해 낼 수 있다.

<표 3>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원환비의 출토지가 백제와 가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라지역의 것으로는 양산 부부총이 유일하다. 다만 청원 미천리고분은 출토유물로 미루어 이 지역에 진출한 신라의 묘제로 생각되므로 함께 출토된 원환비도 신라에서 유행한 형식

임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아진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지역적으로 非신라지역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고, 동반마구도 부부총을 제외하고 백제, (대)가야의 성향이 강하므로 원환비가 성행한 지역은 백제와 가야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식상으로 보아도 B1식의 단조로운 양상을 보이는 신라에 비해 백제와 대가야에서는 다양한 형식이 전개되는 점에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다음으로 원환비가 출토되는 유구는 수혈식, 횡구식, 횡혈식 등 다양하나 시기적으로 모두 6세기 이후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환비의 출현은 6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출토예가 많은 일본의 경우도 6세기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초기 원환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토유구의 연대에 따르자면 그 시기가 모두 6세기 전반대로 한정된 듯한 양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환비는 그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6세기 중엽 이후 원환비의 제작이 쇠퇴하였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해당 시기의 조사가 부족하였거나 혹은 이 시기 이후 마구의 부장이 점차 줄어든 사회적인 분위기에 더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로부터 꾸준히 영향을 받아들이던 매납 규제적 분위기와는 달리 7세기 중엽까지 활발하게 성행한 일본 원환비의 전개양상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볼 때 우리나라의 원환비는 6세기대부터 백제와 대가야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기 시작하여 이로부터 신라,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기존의 표비나 판비와 더불어 새로운 마장문화를 형성해 나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반마구로 보자면 처음에는 원환비와 더불어 장식성이 강한 운주나 행엽 등이 함께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앞 시기로부터 이어지는 장식마구적 성격에 원환비도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한편으로는 장식성을 더욱 부가할 수 있는 판비가 해당 시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제 위주의 원환비는 이의 대응 혹은 기능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원환비의 경우 말의 양 볼에 가하는 압박이 가장 적고 함과 인수의 유동성이 가장 많이 확보된다.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환도 철봉을 구부려 만든 간단한 구조이므로 매우 실용적이며 재질도 모두 철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용성이 원환비의 최대 강점이므로 특정 신분만을 위한 장식마구 제작의 점차적인 쇠퇴와 더불어 실용마구의 보급에 편승하여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 나갔던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대가야나 신라에 비해 백제지역 원환비의 동반 마구가 특히 두드러지지 못한 것은 장식적, 실용적 성격의 여부를 떠나 백제 특유의 박장적 매납풍습에 기인한 바 컸을 것이다.

IV. 分化와 展開

이상, 재갈의 속성 및 연결법의 분류와 출토 연대, 동반마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환비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을 그 연결형식의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 전에 우리나라 6세기대 재갈의 전반적인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남부지방의 경우 앞 시기에 주류를 이루던 표비와 판비가 전반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나간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귀족문화가 정착화되고 남부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원형판비나 하연 중앙이 돌출된 심엽형판비를 표지로 하는 장식판비를 더욱 발달시켰다. 이에 대응하는 백제와 대가야에서도 판비를 계속 생산해 내었는데, 형태상 하연 중앙이 오목한 내만타원형판비 혹은 f자형 판비를 공유하고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²²⁾. 또한 백제와 대가야는 함과 인수의 연결에 계속 유환을 애용하였다. 이외에도 함이나 인수의 제작에 있어 본체의 끝을 구부려 환을 만든 뒤 그 끝을 본체에 감아 마무리하는 기법이 나타나며 인수의환이 굽은 두가닥 인수도 등장한다. 함의 경우 삼한시대에 유행한 바 있는 3연식이 다시 등장하는 것도 특기해 둘 만하다.

원환비의 등장은 6세기대 남부지방 마구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비롯된다. 재갈멈추개의 역할로서 한 개의 독립된 원환을 채용한 이 재갈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등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 수 없다. 이 시기의 북부지방, 즉 고구려나 중국 동북지방에도 동일한 형태의 재갈이 알려진 예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기원전 유럽에서 그 기원과 원형을 당겨와 적용시킬 것도 없이 6세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독특한 재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하튼 중남부지방 원환비의 원형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자료 증가를 좀 더 기다려야 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장식마구에 대응하는 실용마구의 대안으로 중남부지방에서 板의 원환화 과정 속에서 다시 고안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현 자료 중에서 원환비의 초기 형태는 6세기1/4분기로 비정되는 함안 도항리 14-2호, 논산 모촌리 5호분 재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들은 함이 3연식이며 원환을 함외환에 걸고 함과 인수 사이에 유환을 개재시킨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형식상 A1식에 해당한다. 인수도 모두 두가닥이다. 도항리의 인수는 외형상 한가닥이나 원래 두가닥의 본체를 두드린 것이다. 또한 함은 환을 돌린 철봉 끝을 본체 전체에 감아 前代에 크게 유행한 꼬움식을 모방, 그 잔형

22) 金斗喆, 1995. 「嶺南地方 騎乘文化의 受容과 發展」 『伽耶古墳의 編年 研究』Ⅲ, (嶺南考古學會), 25-50. 李尙律, 2001. 「天安 斗井洞, 龍院里古墳群의 馬具」 『韓國考古學報』(韓國考古學會) 45, 125-165.

을 남기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환비는 함과 인수의 유동성이 많이 확보되는 반면 말의 양 볼에 가하는 압박이 가장 적다. 초기 원환비에 3연식의 함이 채용된 것은 원환으로 인해 느슨해진 압박을 함을 통해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연식의 함은 중간마디를 통해 말의 혀를 자극하는 강력한 제어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3연식은 이후 연결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점차 2연식으로 대체되어 나간다.

한편 이들의 원환은 직경이 9cm를 초과하는 대형으로서 초기에는 원환이 매우 크게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환은 단면 원형의 철봉을 그대로 말아 만든 것으로서 별도의 입문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無입문의 정원형 형태가 이후에도 계속 채용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입문이 발달한 일본의 원환비와 좋은 대비를 이룬다.

이상의 특징을 가진 초기 원환비가 출토되는 곳은 백제와 가야지역이다. 그래서 원환비의 출현은 백제, 가야권에서 비롯되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양자 중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 자료만으로는 양 지역을 대표하는 초기 원환비의 형태와 시기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백제와 (대)가야는 마장체계에 있어 이전부터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원환비 역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였는지 간에 서로 빠르게 공유하였을 것임을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연결법상 같은 A1식에 속하는 진주 가좌동 1호분 재갈은 앞의 재갈들과 비교하여 원환의 크기가 작아지고 인수도 한가닥으로 바뀌며 철봉 끝을 본체에 감은 정도가 약화되는 등 변화된 기미가 뚜렷하다. 또한 모촌리 14호 재갈도 인수가 두가닥이기는 하나 원환의 크기가 작고 철봉 단면도 원형에서 방형화한 것이다. 양자 모두 A1식의 퇴화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앞의 재갈들에 비해 한 단계 늦은 제품임이 분명하다.

원환비는 6세기2/4분기를 전후하여 각 구성요소는 물론 연결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우선 구성요소의 변화로는 함의 경우 3연식이 점차 사라지고 2연식으로 대체되어 나간다. 인수는 두가닥에서 한가닥으로 변하고 원환의 직경도 6cm 전후의 크기로 줄어든다²³⁾. 함, 인수, 원환 등 각 구성요소의 철봉 단면도 앞 시기의 원형에서 점차 말각방형, 방형, 이등변삼각형 등으로 변해 나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결방법의 변화이다. 특히 백제와 가야는 서로 다른 연결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백제지역의 경우 원환이 함외환에 걸리는 점은 앞 시기와 같으나 함

23) 한 때 필자는 초기 원환비의 경우 인수가 백제는 두가닥인데 비해 가야는 한가닥에 인수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차이가 곧 백제, 가야라는 계통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가야의 초기 원환비에도 두가닥이 확인되는 이상, 인수의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 계통적 차이를 넘어서서 시기적인 변화상을 더욱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고 싶다. 李尙律, 2004, 「앞글」(주 4), 32-33.

과 인수의 연결에 있어 유환을 생략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모한다. 형식상 B1식에 해당하는데, 미천리 3호, 모촌리 4호 예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대는 6세기1/4분기에 속하기는 하나 거의 2/4분기에 가까운 것들이다. 백제에서는 이러한 B1식이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B1식은 백제식이라 부를 만 하다.

이에 비해 가야에서는 오히려 유환의 활용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그래서 앞 시기에 이어 함과 인수를 연결하는 유환이 여전히 존재하며 함외환에 걸린 원환도 유환에 끼워진다. 형식상 A2식으로서 진주 옥봉 7호분 예가 대표적이다. 가히 재갈을 구성하는 3요소 모두 유환을 매개로 삼아 연결됨으로써 유환 활용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합천 옥전 M6호분에서는 이러한 연결방법과는 달리 유환이 없이 함과 인수가 원환에 의해 연결된 B2식도 새로이 보이고 있다. 유환이 사라진 점에서 유환 활용의 강화라는 측면과 언뜻 맞지 않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 보자면 유환의 기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그 기능이 변질, 유환이 원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크기로 변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원환을 통해 유환의 역할인 인수와 함의 유동성을 극도로 도모한 제품인 것이다. 여기에 입문의 역할로서 겹사슬을 달아 중국에는 새로운 형식의 재갈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형식의 재갈은 현재 옥전 M6호분의 1예뿐이므로 지금 그 고안지를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합천 일대의 多羅國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토예가 많은 일본의 경우 이러한 형식은 주로 6세기중엽 이후부터 유행하는데, 초기 형태는 원환도 크고 겹사슬의 마디수도 많다. 또한 인수의환에는 인수호가 부착된다²⁴⁾. 옥전의 예는 이러한 초기 형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始原의 제품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차후의 자료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함안 말산리 451-1호에서는 유환이 없는 B1식의 원환비가 출토되었다. 이 원환비에 대해서는 인수제작 기법이 도항리 14-2호와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가좌동 1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점, 이와 동반되는 검릉형행엽, 좌목선교구 등의 형태를 근거로 6세기1/4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⁵⁾. 그러나 앞서 충분히 언급하였듯이 연결법상 A1식에 속하는 도항리 및 가좌동에 비해 각 구성요소의 퇴화된 모습이 분명하고 연결법도 다른 점에서 양자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보고자도 인용하고 있듯이 이와 동반하는 검릉형행엽의 편원부 하방에 역삼각형 돌기가 수하된 형태는 시기적으로 6세기2/4분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산리의 원환비는 동반 행엽과도 시기적으로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유환의 활용이 강한 가야지역에서 유환이 없는 B1식도 이 시기에 함께 보이고 있어

24) 板本美夫, 1985.『앞책』(주 2), 47-49. 그의 소위 扇狀兵庫鎖立間素環鏡板付轡I기에 해당하는 특징으로서 6세기 1/4분기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그의 마구 편년관은 과거 수에끼 편년 연대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1~2단계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25)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4.『앞책』(주 7), 65-67.

주목되는데, 가야에서 이러한 형식이 등장하게 된 배후에는 백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싶다. 앞서 백제에서는 유환이 있는 A1식에서 유환이 없는 B1식으로 빠르게 전환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이후 B1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 백제가 가야와의 교류 속에서 이 지역에 이러한 연결법을 전파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말산리 451-1호의 마구 조합상 만으로 보자면 원환비와 함께 검릉형행엽이 조합되고 있다. 가야에서 이 행엽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와 함께 B1식의 원환비가 뒤늦게 조합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조합을 당연한 현상으로 귀납시켜 버릴 수도 있겠지만 자료의 부족이 현저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볼 때 이처럼 백제와 가야가 공유하였던 검릉형행엽의 존재를 통해서도 이 원환비의 배후에 백제를 예상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상, 연결방법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 백제에서는 유환을 가진 A1식에서 유환이 없는 B1식으로의 빠른 변화가 상정되며 이후 B1식이 주류를 점하게 된다. 또한 원환은 유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외환에 걸리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가야에서는 처음에 유환을 가진 A1식부터 비롯되는 점에서 백제와 공통되지만 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유환을 더욱 활용한다. 그래서 함외환에 걸려 있던 원환을 유환에 걸기도 하며(A2식) 때로는 유환의 기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이를 변모, 중국에는 유환을 원환화한 새로운 형식(B2식)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백제에서 유행하던 B1식도 수용하는 등 다양한 전개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결법상의 다양성이 곧 가야 제 지역의 특징과 차이까지 반영하는 것인지는 차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가야에서 B1식의 수용은 곧 이 시기에 백제의 원환비가 가야로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신라의 원환비는 부부총을 통해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 연결법상 백제에서 유행한 B1식을 채용한 점에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이 시기 이후 중원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조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미천리고분에서도 B1식이 출토된 점에서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백제, 가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일본의 원환비를, 가장 이른 형식이 출현하는 九州地方에서의 전개과정을 통해 간단히 언급해 두겠다.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원환비는 江田船山古墳 출토품(도면 1-13)이다. 재갈의 특징상 3연식의 함에 두가닥 인수, 연결법상 A1식인 점 등에서 백제, 가야의 초기 원환비와 극사한 제품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로부터 舶載되었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그 출토예를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으나 九州에서 전개되는 모든 원환비가 계통적으로 백제, 가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들이 한국 남부지방의 어느 곳과 연결되든지 간에, 자국으로의 도입과 함께 빠르게 자체생산의 길로 나아갔음은 이후 원환 자체의 다양한 형태변화(특히 입문의 다양성)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²⁸⁾. 그러나 연결법상으로 보자

면 초기의 A1식 이후 A2·B1·B2식 등 백제, 가야의 제 특징이 일정기간 동안 혼재하다가 점차 백제적 특징(B1식)으로 일원화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각 부위마다 많은 변화를 수반하면서 중국에는 인수의 고사리화, 입문의 교구화해 나갔음은 물론이다. 연결법상 점차 B1식으로 일원화되는 최대원인은 대가야의 멸망에 따라 반도로부터의 교류 창구가 백제로 일원화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들이 유행한 중심시기가 A2·B2식이 6세기 2/4~3/4분기, B1식은 6세기3/4분기이후 라는 점에서도 잘 방증되고 있다. 이 현상을 역으로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적용시켜 본다면 원환비의 최후 형태는 B1식의 구조였음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가야 제 지역이 유통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백제에 의해 B1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이 예상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V. 맺음말

원환비는 한 개의 독립된 원환이 재갈땀추개의 역할을 하는 특징적인 형태의 재갈이다. 그 형태는 원환 자체 혹은 입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문이 없는 정원형 원환이 주류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입문이 발달한 일본의 원환비와 좋은 대비를 이룬다. 아직 출토예가 충분치 못하여 원환을 통한 분류가 불가능하지만 논산 표정리고분의 표형원환으로 미루어 볼 때 원환의 형태와 입문 등을 통해서도 시기적인 변화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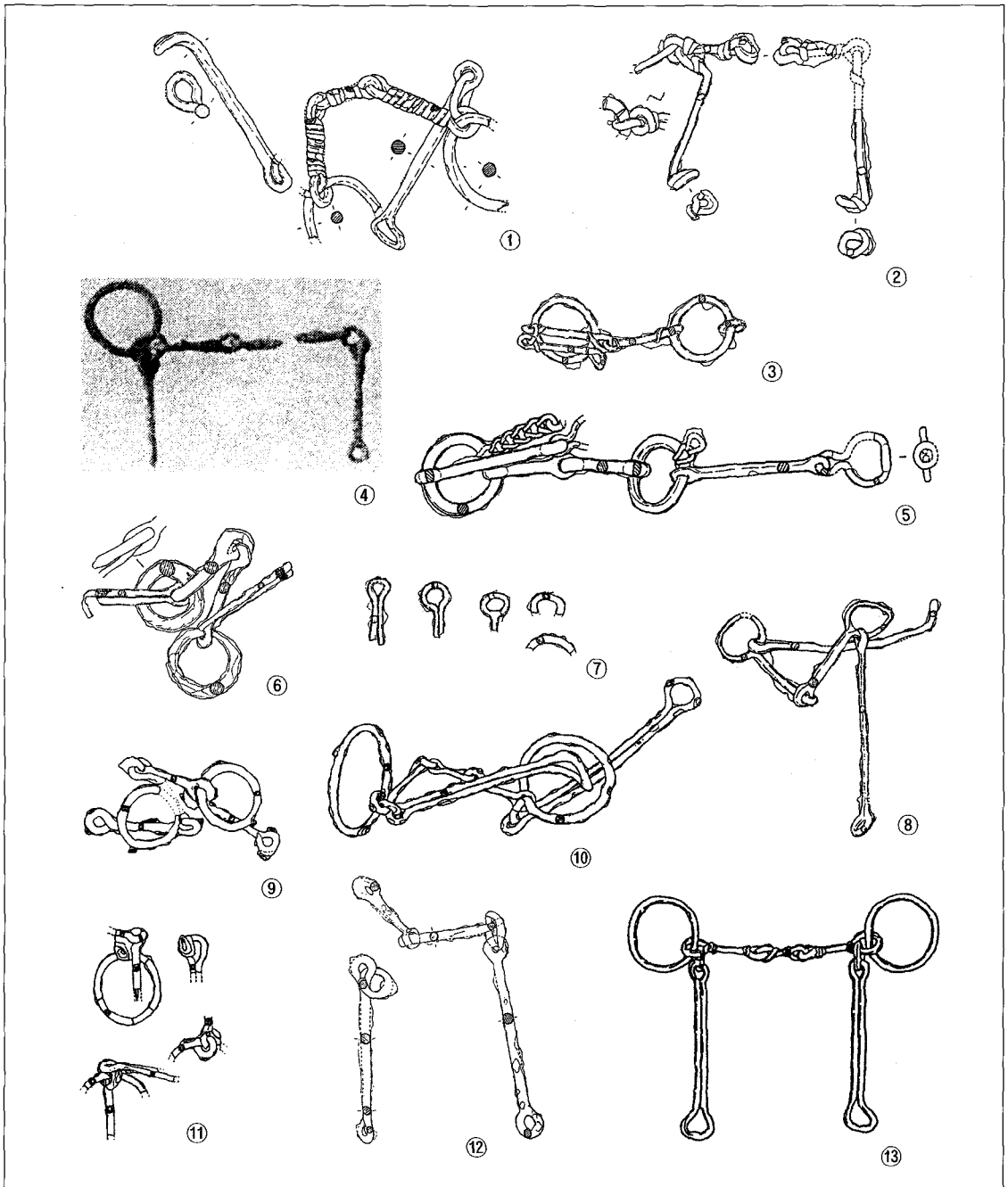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연결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하자면, 유통이 있고 원환이 함외환에 걸린 A1식이 6세기1/4분기에 백제, 가야지역에 처음 등장한다.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기존의 장식마구에 대응하는 실용마구의 대안으로 중남부지방에서 板의 원환화 과정 속에서 남부지방에서 다시 고안된 것으로 보고 싶다. 최초의 출현지가 백제, 가야 중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양 지역은 마장체계에 있어 이전부터 많은 부분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원환비 역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였는지 간에 처음부터 서로 빠르게 共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6세기2/4분기를 전후하여 백제에서는 유통이 없는 B1식으로, 가야에서는 유통을 최대한 활용 혹은 변모시킨 A2·B2식으로 변화한다. 이후 가야지역에는 백제원환비의 확산에 따라 점차 B1식이 유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법의 변화와 함께 인수, 함, 원환의 각

26) 구주에서 원환비를 비롯한 각 재갈의 수용 및 변화과정을 구주의 최대고분군인 宮崎 西都原古墳群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이들 자료의 도면은 李尙律, 2004, 「앞글」(주 4).를 참고할 것.

구성요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겨우 10예를 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 데 따른 거둬진 추론 일 것이다. 또한 논산 표정리고분 출토 표형 원환비와 같이 정원형 원환비 이외의 자료에 대한 검토는 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자료의 증가와 추가되는 검토에 의해 점차 해소되겠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원환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좀더 명확히 인식하고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급선무라는 데 있다.

【참고문헌】

- 岡安光彦, 1984. 「いわゆる「素環の轡」について -環狀鏡板付轡の形式學的分析と編年-」 『日本古代文化研究』(古墳文化研究會) 創刊號.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4 『I. 함안 말산리451-1번지 유적』(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金基雄, 1972. 「馬具」 『韓國の考古學』5장.
- 金基雄, 1985. 「三國時代の 武器와 馬具」 『考古美術』(韓國의 美) 22.
- 金基雄, 1987. 「韓國 古代의 馬銜考」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I』考古學篇.
- 金斗喆, 1995. 「嶺南地方 騎乘文化의 受容과 發展」 『伽耶古墳의 編年 研究』Ⅲ, (嶺南考古學會).
- 金斗喆, 2000. 『韓國 古代 馬具의 研究』(東義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 柳昌煥, 2004. 「百濟馬具에 대한 基礎的 研究」 『百濟研究』(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40.
- 朴東百 외, 1992. 『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I)』(昌原大學校博物館).
- 小川敬吉, 1927. 『梁山夫婦塚と其遺物』(朝鮮總督府 古蹟調査特別報告 5).
- 申敬澈, 1994. 「伽耶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釜山大學校史學會) 18.
- 沈奉謹, 1986. 『陝川鳳溪里古墳群』(東亞大學校博物館).
- 沈奉謹, 1991. 『梁山金鳥塚·夫婦塚』(東亞大學校博物館).
- 鈴木治, 1958. 「朝鮮半島出土の轡について」 『朝鮮學報』13.
- 尹根一 외, 1995. 『清原 米川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國立文化財研究所).
- 李尙律, 1998. 「新羅, 伽耶文化圈에서 본 百濟의 馬具」 『百濟文化』(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7.
- 李尙律, 2001. 「天安 斗井洞, 龍院里古墳群의 馬具」 『韓國考古學報』(韓國考古學會) 45.
- 李尙律, 2004. 「韓國南部地方의 馬具의 推移から見た宮崎縣の馬具」 『それでも騎馬文化はやってきた』(西都原考古博物館).
- 李尙律, 2005. 『三國時代 馬具의 研究』(釜山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 定森秀夫 외, 1990. 「韓國慶尙南道晉州 水精峰2號墳·玉峰7號墳 出土遺物」 『伽耶通信』19·20合輯.
-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朝鮮總督府) 第3冊.
- 趙榮濟·朴升圭, 1989. 『晉州加佐洞古墳群 -1~4號墳-』(慶尙大學校博物館).
- 趙榮濟·朴升圭 외, 1993. 『陝川玉田古墳群Ⅳ』(慶尙大學校博物館).
- 板本美夫, 1985. 『馬具』(考古學ライブラリ) 34.
- 花谷浩, 1986. 「素環鏡板付轡の編年とその性格」 『山陰考古學の諸問題』(山本清先生喜壽記念論集).



도면 1. 삼국시대의 원환비 (12는 표비) <4 축척부동, 이외 1/6 축척>

- ① 함안 도항리14-2호, ② 함안 말산리451-1번지 유적, ③ 진주 가좌동1호, ④ 진주 옥봉7호,
- ⑤ 함천 옥전M6호, ⑥ 양산 부부총, ⑦ 청원 미천리1호, ⑧ 동3호, ⑨ 논산 모촌리4호, ⑩ 동5호,
- ⑪ 동14호, ⑫ 함천 봉계리171호, ⑬ 일본 강전 선산고분

A Study of Ring type Bit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Lee, Sang yul

Ring type Bit(圓環轡) is a specific bit that an independent Wonhwan(ring, 圓環) plays the role of the bit stopper. In three-kingdom especially 6th century A.D., It was in fashion throughout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orm is various according to the Wonhwan or Ipmoon(立聞) but in the case of Korea, a round shape Wonhwan without the Ipmoon was the main current. Therefore It was a striking contrast to an aspect in Japan that the Ipmoon developed diversely.

The appearance of the Ring type Bit began at 6th 1/4 century A.D. in BaekJae(百濟) and Gaya(加耶). It was transmitted to Silla(新羅) and Japan which It form new horse-culture with existing Pyobi(鑣轡) and Panbi(板轡).

Through the Ham(銜), Insoo(引手), Wonhwan and so on components and these linking methods, We can look into the change of Ring type Bit. The case of each component, Ham changed Samyeonsik(三連式) to Eyeonsik(二連式), Insoo changed Ejoseon(二條線) to Iljoseon(一條線) and Wonhwan made greatly at the beginning but it became small. And these section of iron rod changed circle type to square type.

The most remarkable change of Ring type Bit was linking methods of the these components. At first, the type that had free ring(遊環) and Wonhwan hung on Ham-ouihwan(銜外環) belonged to Backjae and Gaya. But afterward 6th 2/4 century A.D. Backjae came to fast transformation as the type without free ring, then this type occupied the main current.

Also Wonhwan made a feature of linking to Ham-ouihwan regardless of existing of free ring. On the other hand, Gaya utilized more free ring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Wonhwan linking to Ham-ouihwan which apply the free ring more. Therefore Wonhwan that hung up Ham-ouihwan hung on free ring, transformed occasionally to extent of maximal capacity of free ring, finally adopted a new type that made free ring into Wonhwan. After that time, the type without free ring was diffused throughout Gaya, It showed Backjae advance into Gaya in the end.

[key word] Ring type Bit(圓環轡), free ring(遊環), Wonhwan(ring, 圓環), Backjae(百濟), Gaya(加耶)